

[위피백과]

수능 국어 - 이십세기(20세기)

: 1994~2000 수능 기출 선별

<1주차 문제지>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4. 수능(1)

최근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부를 향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자원의 고갈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과학 문명의 물질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무분별한 자연의 이용과 개발을 재촉하여 오늘날과 같은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 방식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텄고,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시작된 것이 신과학 운동이다.

신과학 운동의 또 다른 뿌리는 20세기의 현대 물리학과 관련된다.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 단위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던 물리학자들은 분자, 원자를 거쳐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 마침내 양자역학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이젠베르크는 입자의 속도와 위치가 동시에 정확히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로 설명함으로써 양자역학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물리적 현상은 인과율에 따른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만 확률적 예측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은 세기적인 대논쟁을 벌였다. 그 때 아인슈타인은 자연은 아름다운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의 머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양자 역학은 계속 발달하여 현대 물리학의 정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써 신과학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뉴턴 이래 300 년간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던 결정론적 인과율에 바탕을 둔 기계론적 세계관은 존립할 기반을 상실하였다.

지금까지 과학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모든 존재를 기계와 같은 물질 구조로 ㉢ 보고, 환원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기계의 최소 부품간의 상호 인과 관계를 밝혀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신과학 운동에서는 ㉣ 전체가 단순한 부분의 합계 이상이라고 믿고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분석이나 환원적 접근법 대신에 전체를 파악하는 전일적(全一的)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1. ㉠의 논리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 ② 인과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 ④ 사례들로부터 일반화하고 있다.
- ⑤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신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 ② 신은 자연 법칙에 관여하지 않는다.
- ③ 인과율에 따라 우주는 움직인다.
- ④ 입자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따른다.
- ⑤ 자연에는 우연적 요소가 많다.

3.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전자는 4 개의 염기가 이중 나선으로 연결된 것이다.
- ② 컴퓨터를 알려면 반도체를 알아야 한다.
- ③ 문장의 주요 성분은 주어와 서술어다.
- ④ 중금속, 농약, 세제 등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일어난다.
- ⑤ 민족사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4. 밑글에서 현대 문명이 위기를 맞게 된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 ① 무분별한 자원 이용
- ② 과학 기술의 발달
- ③ 지구 환경 오염
- ④ 기계론적 세계관
- ⑤ 현대 물리학의 탄생

5. ㉢의 문맥적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 ① 관찰하고
- ② 간주하고
- ③ 예상하고
- ④ 인지하고
- ⑤ 수용하고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4. 수능(1)

(가)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시메산골
영(嶺) 넘어가려고 그
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 칠팔십 리
돌아서서 육십 리는 가기도 했소.

불귀(不歸), 불귀, 다시 불귀,
삼수갑산(三水甲山)에 다시 불귀.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십오 년 정분을 못 잊겠네.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삼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 김소월, 「산」 -

(나)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저 떠나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百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
라.

- 유치환, 「생명의 서(書)」 -

(다)

폭포(瀑布)는 곧은 절벽(絶壁)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
진다.

규정(規定)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向)하여 떨어진다는 의미(意味)도 없이
계절(季節)과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고매(高邁)한 정신(精神)처럼 쉴사이없이 떨어진다.
금잔화(金盞花)도 인가(人家)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瀑布)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醉)할 순간(瞬間)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幅)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

6. (가)~(다)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심상을 통해서 시인의 내면을 표현했다.
- ② 개인의 체험이 역사적 체험으로 확대되었다.
- ③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구사하지 않았다.
- ④ 처음에 배경을 제시하고, 끝에서 시인의 삶을 나타냈다.
- ⑤ 새로운 리듬을 창조하기 위하여 민요조 리듬을 변용했다.

7. (가)의 3연에 보이는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 ②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앞에서나 자고 가자
- ③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탄식의 고개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는 고개
- ④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없는 날이여.
- ⑤ 아카시아 어린 잎사귀가 피어나는 산모퉁으로
나는 혼자서 거닐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역시 혼자였었다

8. (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상의 세계를 동경한다.
- ②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 ③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 ④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
- ⑤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한다.

9. (나)의 '거기'와 가장 유사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 시어를 (다)에서 찾는다면?

- | | |
|----------|------|
| ① 폭포(瀑布) | ② 물결 |
| ③ 밤 | ④ 소리 |
| ⑤ 번개 | |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4. 수능(2)

역사적 시대 구분의 단위로서 현대라고 할 때에는 보통 제 1차 세계 대전과 1917 년의 러시아 혁명 발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를 지칭한다. 이 시기의 사회 변동의 ㉠ 추이나 그 속에서 전개된 대사건들은 이전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독특한 면모를 갖고 있다. 그 특징들 속에서 우리는 현대의 위상과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다. 우선 이 시기에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거대한 관료 조직 및 막강한 국가 체제가 개인과 사회 집단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대중을 조작하여 그 위에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체주의 체제의 부정적 유산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세계의 여러 나라로 약간씩 형태를 달리하면서 전승되어 갔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 사회론은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의 발흥 원인과 그 사회적 결과를 대중 사회의 출현과 관련시켜 보는 데서 짝이 났다고도 볼 수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과학 기술의 경이로운 발달 및 생산력의 증대에 힘입어 자본주의 체제는 상대적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산업화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은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운위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권은 그들 나름대로 중앙 집중적 계획 경제와 생산 수단의 국유화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제 3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경제 발전을 발판삼아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체제의 변혁을 달성키 위해 몸부림쳐 왔다. 그리하여 지난 반 세기의 세계사의 역정은 이들 세계가 엮어내는 공생과 갈등의 대파노라마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현대 사회의 ㉡ 추이를 되돌아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여전히 부와 불평등과 독점의 폐허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거대한 실험은 결국 정치·경제·사회적 층위간의 불균형과 모순으로 인하여 근래에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왔다. 그런가 하면 중속 탈피와 민족적 자립을 이룩하려는 제 3 세계권의 장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리고 어느 권역이건 사회 전반의 관료 조직화와 대중화의 물결 속에 인간 주체성의 상실 및 인간 소외가 현대 사회의 주된 특질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구조 기능주의나 마르크스주의를 막론하고 거대 이론의 설명력이나 예측력은 빛이 바랄 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근대 혹은 현대가 인류에게 가한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자는 탈현대(포스트모던)의 구호가 고창되면서, 지적·사상적인 방향의 징표가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라는 진단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지향해야 할 행로와 목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인가? 말 그대로 20 세기의 황혼에서 세기말적 침울과 절망의 분위기 속에 주저앉고 말 것인가? 다시 말해, 현대 사회의 미래전망은 정녕 닫혀 있기만 한 것인가?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제 3세계는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나타났다.
- ② 현대 사회를 전망해 볼 때 미래는 절망적이다
- ③ 전체주의 체제의 발흥이 대중 사회의 출현을 앞당겼다.
- ④ 과학 기술의 발달 및 생산력의 증대가 거대 이론을 낳았다.
- ⑤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는 둘 다 관료 조직화된 사회이다.

11. 윗글의 핵심 어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체주의 체제의 폐해
- ② 탈산업사회의 도래
- ③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 ④ 대중 사회의 출현
- ⑤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

12. ㉠, ㉡ 을 문맥에 맞도록 바꾸어 쓸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 |
| ① 추세(趨勢) | 동태(動態) |
| ② 이행(移行) | 궤도(軌道) |
| ③ 상황(狀況) | 여건(與件) |
| ④ 위세(威勢) | 위상(位相) |
| ⑤ 경향(傾向) | 행태(行態)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4. 수능(2)

(가)

님이여, 당신은 백 번(百番)이나 단련한 금(金)결입니다.

㉠ 뿔나무 뿌리가 산호(珊瑚)가 되도록 천국(天國)의 사랑을 받읍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 별의 첫걸음이여.

님이여, 당신은 의(義)가 무거웁고 황금(黃金)이 가벼운 것을 잘 아십니다.

거지의 거친 밭에 복(福)의 씨를 뿌리웁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梧桐)의 숨은 소리여.

님이여, 당신은 봄과 광명(光明)과 평화(平和)를 좋아하십니다.

약자(弱者)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慈悲)의 보살(菩薩)이 되웁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 바다에 봄바람이여.

- 한용운, 「찬송(讚頌)」 -

(나)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못 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石壁欄干) 열두 층계 위에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춧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千年)이 지나도 눈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쭉한 속눈썹에 향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렵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합니까?

몇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 허공중천(虛空中天)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웃자락은, 눈물 어린눈이 아니고는 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千年)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날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다)

그의 행복을 기도 드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자.

그의 파랑새처럼 여린 목숨이 애쓰지 않고 살아가도록 길을 도와 주는 머슴이 되자.

그는 살아가고 싶어서 심장이 팔뜨다거리고 눈이 눈물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나의 그림자도 아니며 없어질 실재도 아닌 것이다.

그는 저기 태양을 우러러 따라가는 해바라기와 같이

독립된 하나의 어여쁘고 싶은 목숨인 것이다.

어여쁘고 싶은 그의 목숨에 끄나풀이 되어선 못쓴다.

당길 힘이 없으면 끊어 버리자.

그리하여 싶으도록 걸어가는 그의 검은 눈동자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자.

그는 다만 나와 인연이 있었던

어여쁘고 깨끗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정한 몸알일 따름.

그리하여 만에 혹 머언 훗날 나의 영역이 커져

그의 사는 세상까지 미치면 그뻔

순리로 합칠 날 있을지도 모를 일일꺼며.

- 신동엽, 「그의 행복을 기도 드리는」 -

13. (가)~(다)에 나타난 서정적 자아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운명적 죽음을 예감(豫感)함.
- ②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봄.
- ③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함.
- ④ 사랑의 성취를 낙관(樂觀)함.
- ⑤ 화해(和解)의 세계를 열망함.

14.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 사물을 통하여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 ②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지와 염원이 나타나 있다.
- ③ 시적 진실은 과학적 사실에 어긋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 ⑤ 자기 신념의 확고함이 드러나 있다.

15. (나)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시적 의미가 형상화된 시어는?

—<보 기>—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양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일 수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 ① 이끼
- ② 춧불
- ③ 한숨
- ④ 웃자락
- ⑤ 비바람

16. (다)의 시어 중 지시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 ① 유일한 사람
- ② 머슴
- ③ 나
- ④ 끄나풀
- ⑤ 정한 몸알

빠른 정답

[1~5] 1994. 수능 1차				
1	2	3	4	5
②	③	⑤	④	②

[6~9] 1994. 수능 1차			
6	7	8	9
①	③	③	③

[10~12] 1994. 수능 2차		
10	11	12
⑤	⑤	①

[13~16] 1994. 수능 2차			
13	14	15	16
⑤	④	②	⑤